

# 추석에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 다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수 47)

사랑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한 한 해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251장(통일찬송가 137장)「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56장「다 와서 찬양해」

기 도 ..... 가족 중에서 ..... 다같이

말씀나눔 ..... 여호수아 4:1~14(구약 p.323) ..... 인도자  
“길갈의 열두 돌”

축복과 비전나눔 ..... 온 가족이 다함께  
(가족 모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찬 송 ..... 352장(통일찬송가 390장)「십자가 군병들아」 .....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43장「너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마 침 ..... 주기도문 ..... 다같이

## 길갈의 열두 돌(여호수아 4:1~14)

여호수아 4장은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그의 백성을 향한 기이한 일(amazing things, 수 3:5)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이한 일은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7절) 물이 끊어진 기적을 중심으로 저자는 '건너다'(7, 10~13, 22~23절)란 동사와 '올라오다'(16~17절)란 동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하 사건 이야기 중심에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이란 곳에 세워 기념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5장). 또한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소와 제단을 세우기도 합니다(9:23, 27). 길갈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로 자리를 잡았으며(삼상 10:8), 사무엘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곳이기도 합니다(삼상 7:16). 사울은 이곳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삼상 11:14~15).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록해도 될 것인데 굳이 하찮은 돌 열두 개를 취해서 길갈이란 곳에 기념비로 세우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 첫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24절). 가만히 눈을 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한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출애굽 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젓가락 하나 놓으면 될 것을 고비 고비마다 반역하고 원망하고 태클을 걸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수 1:6~8). 이 말씀의 이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든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두려워했습니다. 풀 한 포기도 살지 않고 살아 있는 생명마저 삼키는 광야를 두려워했습니다. 범람하는 강물의 흐름과 강폭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세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는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하나님은 실물로 증명해 주시고 나서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 둘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실을 듣고 자랄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열두 돌을 기념비로 세우신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24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한 사사시대가 도래한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때문입니다(삿 2:10).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삿 21:25).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 자체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유도한 사탄의 속임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을 끌어들임으로 인류의 원죄를 유도했습니다. 묘수가 따로 없습니다. 영적인 선배들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을 배우게 됩니다.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은 길갈의 열두 돌을 기념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도 뒤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갈의 열두 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가족이 길갈의 열두 돌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해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 우리 가정이 두려워하는 영적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우리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됩시다.

